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나이, 국적, 성별 뛰어 넘어 하나된
2025 서울마라톤

3면

채널A '국회의사당X앵커스' 인기
앵커스-정치인 케미 폭발

4면

신문박물관, 창간기념일 신문의날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



동아일보 임직원들은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진행된 창간 105주년 기념식에서 그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날 임채청 사장(40년 근속) 등 장기근속자 32명은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상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오직 사실의 편에 서 국민과 함께 해온 동아 105년”

동아일보 창간 105주년 기념식...‘직접 확인한 사실을 진심을 담아 전한다’는 원칙 강조

“동아일보는 105년 동안 오직 사실의 편에 서 국민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4월 1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창간 105주년 기념식에서 “동아일보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불편 부당 시시비비’라는 동아일보 저널리즘의 원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넓게 알려온 105년

이날 김 회장은 창간 정신을 실천해 온 동아의 105년 발자취를 되짚었다. 김 회장은 “1920년 4월 1일, 인촌 선생은 ‘민중의 의사와 이상과 목표와 희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보도하겠다’는 목표로 동아일보를 창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1923년 영문

란을 신설하고, 워싱턴 도쿄 상해에 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한국 언론 사상 최초의 시도들을 해왔다”며 “공들여 확인한 진실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 넓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105년 동안 달려왔다”고 했다.

또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의 전통인 건강한 공동체를 지명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가 편향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극단의 외침이 공론의 장을 덮으려 하고, 의도를 담은 거짓들이 사실을 밀어내려는 양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을 진심을 담아 전한다는 동아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은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일이 없이 모두에게 동등해야 하고, 어제의 잣대와 오늘의 잣대 역시 같아야 한다”며 “누군가의 진실에 귀 기울일 때는 냉정하지만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진화를 활용한 사실의 가치 확산

이날 김 회장은 디지털 분야의 도약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노력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편집국은 24시간, 주 7일 디지털 편성 체계를 가동해 동아의 퀄리티 저널리즘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일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정모독’과 ‘답다이브’에 이어 ‘정치를 부탁해’ 등을 선보이며 다양한 뉴스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아닷컴은 AI를 활용한 독자 맞춤형 기사 추천 시스템을 선보였고 지면과 디지털, 그리고 구성원들의 업무 곳곳에서 AI의 활용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곧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에 대한 기대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올해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 들어설 미디어 사이니지 역시 동아 뉴스가 더 넓은 세상과 만나는 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기근속자 32명 표창 수여

이날 기념식에선 ‘동아 Digital Contents의 위대한 도약과 도전’을 주제로 한 영상도 소개됐다. 채널A B&C가 제작한 기념 영상에는 창간 당시의 화동 사옥 편집국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환하게 웃는 모습 등이 시를 통해 구현됐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장기근속 표창 수여식에서는 임채청 사장(40년 근속), 전승훈 콘텐츠기획본부 기자(30년 근속)가 근속자들을 대표해 공로패를 받았다. 또 손일수 재경국 회계팀장(20년 근속), 김민 편집국 기자(10년 근속)는 표창장을 대표 수상했다. 장기근속자들에게 직접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한 김 회장은 “동아의 성취는 여러 분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으로 동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① 지난달 16일 2025 서울마라톤 겸 제95회 동아마라톤에서 폴코스 참가자들이 출발점인 광화문 광장을 한자게 나서고 있다. ② 대회 당일 도착점인 잠실종합운동장 호돌이 광장에 마련된 동아일보 홍보 부스. 동아일보 1개월 무료 구독을 신청하면 '신문네트'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③ 배편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와 몸에 붙이는 타투 스티커 굿즈. 대회 전날 부스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나이, 국적, 성별 뛰어 넘어 하나된 2025 서울마라톤

역대 최대 규모 66개국 4만 명 참가...30대 이하·외국인·여성 비율 모두 증가

지난달 16일 열린 2025 서울마라톤 겸 제95회 동아마라톤에 역대 최대 규모인 66개국 4만 명(폴코스 2만 명, 10K 2만 명)의 러너가 참가했다. 보슬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폴코스 출발지인 광화문 광장과 10K 출발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은 현장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서울 도심을 달린 러너들은 종목과 국적, 성별을 뛰어 넘어 땀과 응원, 박수로 하나가 됐다. 올해도 서울마라톤은 국내 유일의 세계 육상 문화유산 겸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인증 대회로 개최됐다.

러닝 문화 선도하는 서울마라톤

이번 서울마라톤은 30대 이하, 외국인, 여성 참가자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30대 이하 참가자 비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55%, 외국인 참가자는 8%에서 9%

로 증가했다. 여성 참가자 비율도 28%에서 30%로 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젊고, 다양성이 강화된 대회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첫 선을 보인 '2025 동아마라톤 멤버십' 등 신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이번 서울마라톤, 9월 공주백제마라톤, 10월 경주국제마라톤 등 3개 대회 참가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내년 서울마라톤 우선 신청권도 제공한다. 이번 멤버십에 4000명 넘게 가입해 러너들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배 번호 반납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주목받았다. 이 제도는 부상 등으로 출전이 어려워진 참가자가 배 번호를 사무국에 반납하면, 내년 우선 참가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 시스템이다. 배 번호 양도나 복사, 무단 참가 등 운영 투명성을 해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설했다. 이 제

도로 약 1500명의 참가자가 배 번호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건강한 러닝 문화를 선도하는 '1등 대회'다운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여기에 더해 폴코스 완주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열정을 끌어 올렸다. 12주 훈련 과정에는 60명 중 49명(82%), 8주 과정은 86명 중 56명(65%)이 끝까지 참가했다. 7회 이상 출석하고 2025 서울마라톤 폴코스를 완주하면, 내년 서울마라톤 우선 신청 자격이 제공된다. 훈련을 마치고 폴코스를 뒀 참가자들은 "생애 첫 폴코스를 서울마라톤에서 완주해 특별했다",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문네트' 등 동아일보 홍보부스도 인기

대회 전날과 당일인 지난달 15, 16일에는 도착점인 잠실종합운동장 호돌이 광

장에 '당신의 낭만을 편집해 드립니다'라는 컨셉의 동아일보 홍보 부스가 마련됐다. 마라톤과 신문을 연계해 재미난 방식으로 다양한 동아일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 전날에는 부스 방문객에게 배편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와 몸에 직접 붙이는 타투 스티커 굿즈를 제공했다. 대회 당일에는 동아일보 1개월 무료 구독을 신청하면 '신문네트'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동아일보 다이어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신문네트에는 빈티지풍의 신문 템플릿에 직접 찍은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이 행사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동아일보 마케팅본부는 "대회 참가자가 본인 사진과 대회 기록을 보내오면 신문 1면 컨셉으로 액자를 만드는 상품도 판매 중"이라고 전했다.

대회 자원봉사자 '동마크루'의 활약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었다. 러너들에게 물병을 건네고, 완주자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며 따뜻한 박수로 응원했다. 지난해 동마크루로 활동했던 참가자가 올해는 직접 완주자가 되어 돌아와 현장 코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인 서울마라톤의 여운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말까지 아디다스 매장을 방문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록을 티셔츠에 새기거나, 메달에 각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고기정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은 "5년 뒤 100주년을 앞둔 서울마라톤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김승현

마케팅본부 MX팀 박선

'DAMG AI 마스터 클래스' 2기 이달 말 시작

기초-심화-직무특화 세분화해 AI 활용 능력 강화



지난해 'DAMG AI 마스터 클래스' 1기에 참가한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이 AI를 활용해 조별 실습을 하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이 구성원들의 인공지능(AI)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DAMG AI 마스터 클래스' 2기를 4월 말부터 시작한다. 기초 과정을 운영했던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1기와 달리 이번 2기는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직무특화(콘텐츠 생성) 과정으로 세분화해 구성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기초 과정은 생성형 AI 기본 이해와 업무 적용 방법을 학습하는 1일 과정으로 진행되고 심화 과정은 파이썬 등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3시간씩 총 4주에 걸쳐 진행된다. 직무특화 과정은 이미지, 동영상 AI 툴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를 2일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을 주관하는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 황문국 팀장은 "단순히 AI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

하고 활용하는 법까지 교육 범위를 확장했다"며 "특히 심화 과정은 참여자의 업무 생산성 개선 지점을 분석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실무 적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 활용법을 배우게 된다.

지난해 1기에는 동아일보 59명, 채널A 22명 등 총 81명이 참여했고, 이중 93%가 "추가 AI 교육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2기는 동아일보와 채널A는 물론 동아미디어그룹 전체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구성원에게 AI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인재문화팀은 AI 마스터 클래스 수료자들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AI 사내 강사를 육성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 이수진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담×앵커스’ 인기…앵커스-정치인 케미 폭발

짧고 빠른 편집·재치 넘치는 CG에 “꼭 보게 된다” 뜨거운 반응



왼쪽부터 차례대로 '국회의사담×앵커스' 한동훈 편, 홍준표 편, 나경원 편.

채널A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국회의사담×앵커스>가 론칭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 수가 180만 회(풀버전 기준)를 돌파했다. 채널A 간판 앵커인 김진, 김종석, 황순욱 앵커가 진지한 듯 유쾌하고, 정제된 듯 솔직한 인터뷰로 시청자를 사로 잡았다. '국회의사담'과 '사담(私談)'을 재치 있게 결합한 제목처럼 국회의사담은 정치인과 앵커가 만나 진지하면서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운 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TV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앵커들의 반전 매력과 정치인들의 예상치 못한 답변 등이 관련 포인트다.

국회의사담 '나경원 편'은 94만 뷰를 기록했고, '한동훈 편'과 '홍준표 편'도 각각

30만 뷰를 넘기며 화차가 거듭될수록 인기몰이하고 있다. 황순욱 앵커는 "기존 방송에서 보지 못한 정치인의 모습을 끌어내는 데 가장 공을 들인다"고 설명했다. 김진 앵커도 "인물의 캐릭터와 앵커와의 케미스트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질문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끈다"고 전했다. 국회 의원회관과 사랑재, 대구시청 구내식당 등 편안한 장소에서 인터뷰에 나서 인터뷰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종석 앵커는 "채널A 간판 앵커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서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도 섭외에 잘 응해 준다"고 귀띔했다.

유튜브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포맷답게, 짧고 빠른 편집과 재치 넘치는 CG도 국회의사담의 인기 비결이다. 채널A 보도본부 디지털팀 신준모 CD는 "재미 없는 정치인에게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1시간 반짜리 인터뷰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송유라 CD도 "사소한 행동이나 표정, 습관 등 모든 요소에서 출연자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송 CD는 국회의사담 로고를 직접 그리기도 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댓글 반응도 뜨겁다. "이 시리즈는 누가 나와도 꼭 보게 된



다", "앵커들의 찐 매력에 빠졌다"며 고정 시청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진지한 정치 콘텐츠에 유쾌한 사담의 웃을 입힌 국회의사담은 조기 대선 정국에 발맞춰 대선

주자들을 발 빠르게 만나 구독자들을 찾을 예정이다.

보도본부 디지털팀 콘텐츠제작팀 곽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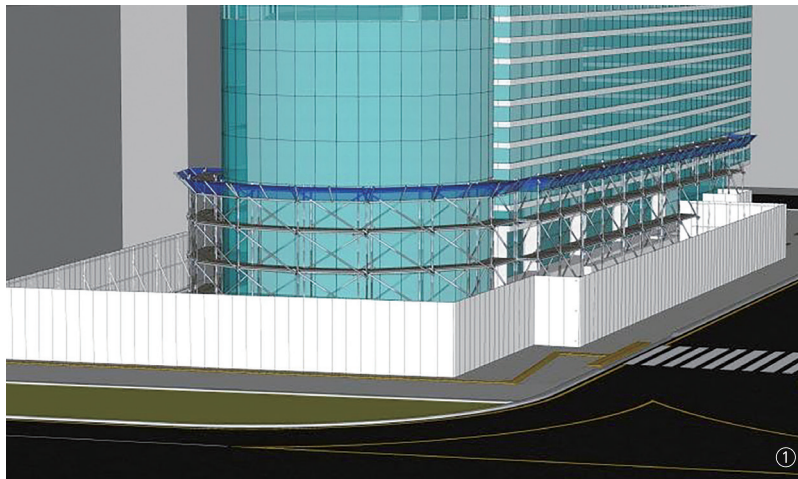
국내 최대 규모 동아미디어센터 미디어 사이니지, 이달 착공

총 6개월 공사…진동·소음 큰 작업은 야간 진행 등 업무 불편 최소화

동아미디어그룹의 창의적 역량과 열정을 담아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미디어 사이니지가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총 6개월로 10월 경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가설 공사, 기초 공사, 구조물 공사, LED 설치 및 마감 순으로 진행된다. 가설 공사 때는 동아미디어센터 서측 채널A 오픈스튜디오 부근에서 정문 출입구까지 방음벽과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된다. 공사 중에도 정문으로 출입은 가능하다. 다만 방음벽 설치 이후 건물 주변 인도가 좁아지고, 건물 앞 청계 광장 방향 건널목 쪽에 작업 차량 출입구가 설치돼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초 공사 때는 건물 외벽 햇빛 가리개인 선바이어를 떼어내고, 에이치(H) 모양의 철강 자재인 캔틸레버를 건물 바닥에 접합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캔틸레버는 LED가 장착될 구조물과 기존 건물 외벽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지상 6층부터 20층까지 각 층 창가 라디에이터 쪽 바닥에 고정된다. 캔틸레버 설치 작업 중 진동과 소음이 큰 드릴 작업은 방송 제작 및 업무 시간을 피해 야간(오후 7시~오전 5시)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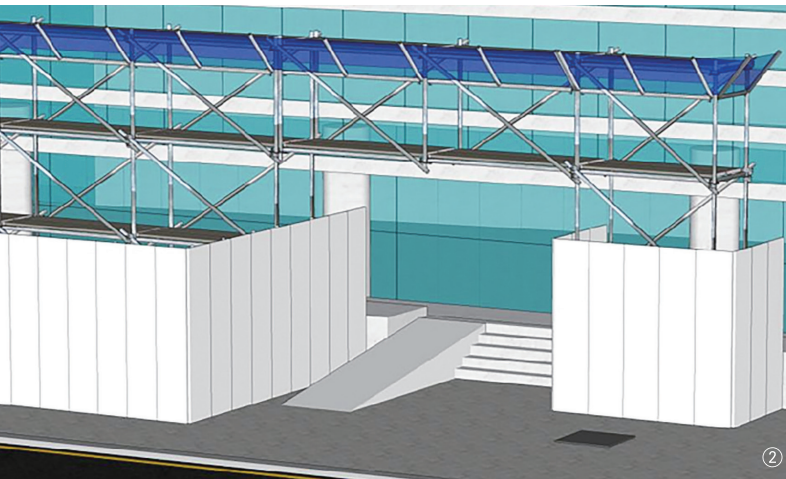


①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미디어 사이니지 공사가 시작되면 오픈스튜디오 부근부터 정문 출입구까지 방음벽과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된다. ② 공사 중에도 정문으로 출입은 가능하다. 다만 방음벽 설치 이후 건물 주변 인도가 좁아지는 등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연결 작업은 중간에도 이뤄져 일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진동, 소음 발생 공정은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초 공사 후 LED 구조물 설치, LED 설치, 임시 운영 등을 거쳐 정식 운영에 나선다. AD본부 미디어사이니지팀(02-2020-0662)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 등 민원을 접수한다. 고기정 미디어솔루션본부장은 "무(無)사고 시공을 목표로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동아미디어

센터 미디어 사이니지가 광화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미디어센터 미디어 사이니지는 가로 50m·세로 60m, 총면적 3000㎡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농구장(420㎡) 7개 이상을 합친 크기다. 특히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설치되는 미디어 사이니지 가운데 유일한 곡면형이다.

미디어솔루션본부 C팀 최동수



공사 단계별 안내 사항	
주요 공사	안내 사항
가설 공사	- 오픈스튜디오~정문 출입구 방음벽 시공 -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존 출입구 이용 가능)
기초 공사	- 선바이어 철거, 철강 자재 접합 등 - 소음·진동 큰 작업은 야간에 집중
구조물 및 LED 설치	크레인 이용해 LED 설치
공사 관련 문의	AD본부 미디어사이니지팀(02-2020-0662)



신문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신문 관련 상식을 배우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며 유익한 시간 보냈다. 신문박물관은 참가자들이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표어를 박물관에 전시했다.

신문박물관, 창간기념일·신문의날 맞아 표어 만들기-입사시험 퀴즈 이벤트

신문박물관이 동아일보 창간기념일(4월 1일)과 신문의날(4월 7일)을 맞아 1일부터 6일까지 박물관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표어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매력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콘텐츠”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문박물관은 4월 1일부터 ▲표어 만들기 ▲선물 보기 ▲1974년 신문사 입사시험

퀴즈 풀어보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관람객들과 신문 표어를 작성한 참가자 전원에게 신문박물관 기념 수첩도 제공했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신문 읽는 나 너무 매력적”, “신문을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등의 표어를 귀여운 글씨와 개성 있는 그림으로 남겼다. 선물 보기 참가자들은 신문해부도와 신문박물관에서 제작한 교육

키트 등을 받았다.

신문박물관은 소장품인 ‘1974년 동아일보 입사 시험 상식문제지’를 복원한 퀴즈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다음 소설 가운데 어느 것이 ‘톨스토이’의 작품인가?” “관악역에서 최저임부를 담당하는 약기는 다음의 어느 것인가?” 등의 옛 상식 문제를 당시 종이의 질감을 살려 제작했다. 관람객들

은 현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신문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presseum)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시험을 치렀다. 최초 만점자는 ‘흑쪽이 베개’를, 고득점자는 신문박물관 연필 세트를 경품으로 받았다. 김현주 신문박물관 연구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합심해서 입사 시험 퀴즈를 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시험지를 소장하고 싶다

며 채점 후 가져간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동아일보 재경국 이현종 과장 역시 “박물관을 둘러보고 퀴즈도 풀며, 그동안 동아일보 사원이면서도 잘 몰랐던 신문 관련 상식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신문박물관 장혜림

채널A B&C, 2025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관왕 수상

‘탐정들의 영업비밀’·‘A-STARZ’,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 영예



①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널A B&C 방어를 선임, 유지상 부문장, 오혜정 팀장. ② 채널A 예능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독창적 시각 언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③ 캐릭터 아이돌 프로젝트 ‘A-STARZ’는 ‘금쪽이’ ‘라비’ 등 채널A 예능에서 활약한 캐릭터로 구성된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다.



채널A B&C가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2025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ASIA DESIGN PRIZE)에서 ‘탐정들의 영업비밀’과 ‘A-STARZ’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에서 채널A B&C가 참여한 채널A 예능 콘텐츠 ‘탐정들의 영업비밀’과 캐릭터 아이돌 프로젝트인 ‘A-STARZ’는 각각 독창적 시각 언어와 통합 브랜딩 전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 디자인프라이즈는 올해 총 22개국에서 1879개 작품이 출품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시상식이다.

수상작인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사건과 탐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건

해결 과정을 퍼즐을 모티브로 시각화했다. 주최 측은 “퍼즐 조각은 단서를, 완성된 퍼즐은 해결의 순간을 나타내는 등 추상적 스토리를 퍼즐로 시각화해 몰입감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A-STARZ’는 〈금쪽같은 내새끼〉, 〈하트시그널〉 등 채널A 예능에서 캐릭터로 활약한 ‘금쪽이’와 ‘라비’ 등으로 구성된 가상의 캐릭터 아이돌 그룹이다. 채널A의 브랜드를 살리는 동시에 채널A의 슬로건 ‘Play the Next: 즐겨봐 너의 세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널A B&C 브랜드디자인팀은 앞으로도 채널A만의 정체성을 담은 도전적인 디자인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채널A B&C 브랜드디자인팀 오혜정

수상소식



히어로콘텐츠팀 ‘트랩, 돈의 뒷에 걸리다’ 한국신문상 수상

히어로콘텐츠 8기팀이 보도한 ‘트랩, 돈의 뒷에 걸리다’(김호경 김소영 김태연 서지원 위은지 홍진현 임상이 임희래 조건희 이승건 황준하 김충민)가 2025년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 등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정하 /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 ① 좋은 질문이 세상을 바꾸듯 명확하고 올바른 질문으로, 제 진정성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다변화 시대 속 시장 흐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모색해나가고 싶습니다.
- ②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게 바쁘다는 핑계로 1년간 쉬었던 헬스와 수영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내에 스포츠 동호회가 있다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 ③ (주)지틸에불루션, (주)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김세인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안녕하세요. 채널A 제작관리팀에 입사한 김세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성실함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② 최근에 자주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꾸준히 독서를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채원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에 입사하게 된 문채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채널A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직 일하며 배워야 할 점이 많겠지만,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② 요즘 OTT를 자주 즐기면서 예전에 봤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다시 정주행하면서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이큐는 정말 재밌게 봐서 여러 번 정주행 했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었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윤소정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안녕하십니까. DDMC관리팀 신입사원 윤소정입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이 곳, 채널A에서 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배우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저의 요즘 관심사는 밴드 음악입니다. 밴드 중에서도 드럼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에 밴드 장리를 찾아 듣는 게 취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드럼을 배우고 싶습니다!